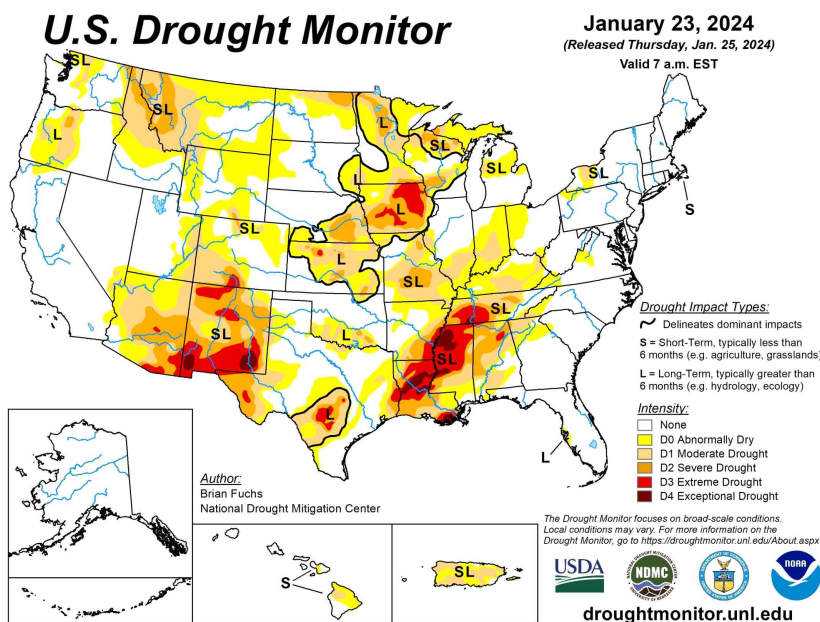


1월 3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5)

□ 미국 기후 현황(1/21-1/27)

활발한 폭풍 하나가 지나간 경로를 따라 극서부 그리고 텍사스 중부에서부터 미시간 호까지 이어지는 선을 따라 및 그 선의 남동부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여 나라의 여러 지역들을 가로질러 따뜻해지는 추세가 동반되었다. 대서양 남부 지역, 평원의 북서쪽 절반, 중서부 먼 북부를 포함한 미국의 다른 많은 부분들에는 강수가 거의 없었다. 더 온화한 조건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었지만 평원 남부에서 중서부까지는 영하의 비가 파괴적으로 쌓였다. 북서부의 내부 지역도 다소의 착빙을 겪었다. 또한 평원과 중서부의 넓은 구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언급되었는데, 따뜻해진 공기가 여전히 차가운 지면을 덮었고 많은 경우 여전히 눈 덮개가 남아 있었다. 1월 17일에 눈이 미국의 거의 59 퍼센트를 덮어 최고치에 이르렀으나 그 후에 단 12일 만에 덮인 면적이 미국 본토 48개 주의 3분의 1 미만 (33 퍼센트)으로 떨어졌다. 그밖에 멕시코 만 연안 주 서부와 중부 지역에 두 차례에 걸쳐 폭우가 쏟아져 내린 총 2-8인치의 비가 저지대 홍수로 이어졌다. 미시시피 중류와 오하이오 계곡 같은 먼 북쪽에서는 1-3인치의 광범위한 비가 관측되었는데 이로 인해 군데군데 경미하거나 중간 수준의 강 범람이 발생했다. 1월 중순에 최고조에 달하면서 대략 10일간 이어진 극한 추위 이후에 주간 기온이 미국 북쪽 국경 지역을 가로질러, 특히 평원 북부에서부터 오대호 주들까지, 주간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10-15° F 급등했을 가능성은 없다. 또한 동부와 산간서부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10° F 이상 높았다. 쌀쌀한 날씨가 지속된 몇 지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남부 평원은 오克拉호마와 텍사스 북부 일부 지역에서 평년보다 다소 낮은 기온이 관측되었다.



□ 농업 현황 요약

자료 없음

□ 세계 기후 현황(1/21-1/27)

■ 유럽:

따뜻한 날씨가 유럽 대부분으로 퍼졌고 북부에는 소나기가 추가로 내린 반면 남부는 건조한 조건을 보여 대조적이었다. 독일에서부터 폴란드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 (평년 대비 최대 5° C 높음)으로 지난주에 내린 눈을 녹였으나 동사(凍死)의 위험은 최소화했다. 주말에는 스칸디나비아와 발트해 연안 국가의 최북단 지역에만 눈이 덮였다. 광범위하게 보통 내지 강한 수준으로 내린 소나기들 (10-50 mm, 국지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지역에는 더 많음) 때문에 눈이 가속적으로 녹았으나 휴면 중인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들을 위한 수분 보유량을 풍부하게 유지해주었다. 더 남쪽으로 이베리아 반도는 날씨가 화창하고 매우 따뜻하여 (평년보다 최대 8° C 높음) 계절 야외작업을 촉진했고 더 따뜻한 남부 채배 지역에서는 겨울곡물의 성장을 가속화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최남동부 지역은 불리하게 건조해서 특용 작물에 대한 관개 수요를 높였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그리스, 발칸 반도 남부 대부분에서는 화창하지만 평년에 가까운 기온이 야외작업에 그리고 더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는 겨울곡물의 초기 발달에 유리했다.

■ 구소련(서부):

자료 없음

■ 동아시아:

자료 없음

■ 호주:

더 덥고 더 건조한 날씨 (대부분의 곳들에서 5 mm 미만)가 호주 동부 대부분을 덮쳐 여름작물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었다. 강해진 더위와 건조가 증발 손실을 올리기는 했지만 최근 내린 흠뻑 젖는 비 덕분에 수분 공급은 충분하거나 풍부했다. 결과적으로 화창한 날씨와 충분한 토양 수분이 면화, 수수, 기타 여름작물의 발달을 촉진했다. 퀸즈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의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2-4° C 높았고 서부 채배 지역들에서는 최고 기온이 어느새 섭씨 40도 초까지 올라갔다. 뉴사우스웨일즈 남부의 평균 기온은 평년에 가까웠고 최고 기온은 대체로 30도 중반이었다. 1월 25일에 매우 강한 열대성 저기압 키릴리가 퀸즈랜드 북부 타운즈빌 북쪽에 상륙했는데 최대 지속 풍속이 거의 65 노트에 달했다. 그 폭풍이 주요 사탕수수 생산 지역 근처에 상륙하기는 했지만 키릴리는 비교적 소형이었고 무질서한 전선으로서 내륙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사탕수수 피해가 최소화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아르헨티나: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최근 몇 주 동안의 유익한 강우에 이어 여름작물의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 북서부에 예외적으로 가볍거나 보통 수준으로 내린 소나기들 (5-35 mm)을 제외하면 주요 여름 곡물, 유지작물, 면화 지역들에서는 완전한 건조가 만연하여 여러 발달 단계에 있는 작물들의 빠른 발달을 촉진했다. 주간 평균 기온은 라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포함한 남부 및 서부 농업 지역들에서는 평년보다 1-3° C 높았던 데에서부터 북동부에서는 평년보다 2° C 낮은 데까지의 범위를 보여주었다. 더 따뜻한 지점들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상단에 도달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온이 30도 초반에 붙잡혀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월 25일 현재 옥수수과 대두는 각각 95 및 99 퍼센트 파종되었다; 면화는 작년의 86 퍼센트와 비교해서 98 퍼센트 파종되었다.

■ 브라질:

국지성 폭우를 동반한 광범위한 소나기가 브라질 전체를 뒤덮었으나 많은 곳들에서 소규모 건조 지점들이 다시 나타났다. 보통 내지 강한 비 (50-100 mm, 국지적으로 더 높음)가 마투그로수 북부에서부터 동쪽으로 뻗어 있는 넓은 지역을 덮었는데 여기에는 미나스제라이스에 서부터 북쪽으로 마란하오까지의 농업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조적으로 마투그로수 남부에서부터 상파울루까지는 더 건조한 조건이 만연하여 많은 지점들에서 10 mm 미만을 기록했다. 앞서 언급한 지역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변동이 매우 심했는데 낮 최고 기온은 대략 섭씨 30도 초중반의 범위를 보였다. 마투그로수 정부에 따르면 1월 26일 현재 대두는 작년의 18 퍼센트 대비 22 퍼센트 수확되었다; 옥수수와 면화는 각각 11 및 77 퍼센트 파종되었는데 이는 두 작물 모두 작년 속도보다 앞선 것이다. 더 남쪽에서는 파라나 북서부와 파라과이 동부에 중간 수준의 소나기 (25-75 mm)가 집중되었으나 남부와 서부 농업 지역들이 완전히 건조했던 히우그란지두술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더 건조한 조건을 보여주어 대조적이었다. 마투그로수두술과 상파울루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3° C 낮았고 낮 최고 기온은 20도 후반과 30도 초반에 머물렀다. 정부 보고서들에 따르면 파라나의 1기작 옥수수와 대두는 1월 22일 현재 각각 13 및 12 퍼센트 수확되었다; 2기작 옥수수는 13 퍼센트 파종되었다.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1월 25일 현재 옥수수 파종이 거의 완료되었고 약 50 퍼센트가 성숙 내지 수확되었다; 한편 대두의 38 퍼센트가 개화에 이르렀다.